



## 미 증시, 매파 연준 부담, 침체 불안 등으로 약세

### 미국 증시 리뷰

8 일(수) 미국 증시는 실업지표 상승으로 인해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차익실현물량 출회 속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 장단기금리차 확대에 따른 침체 우려 재점화 등으로 끝내 하락 마감(다우 -0.7%, S&P500 -0.9%, 나스닥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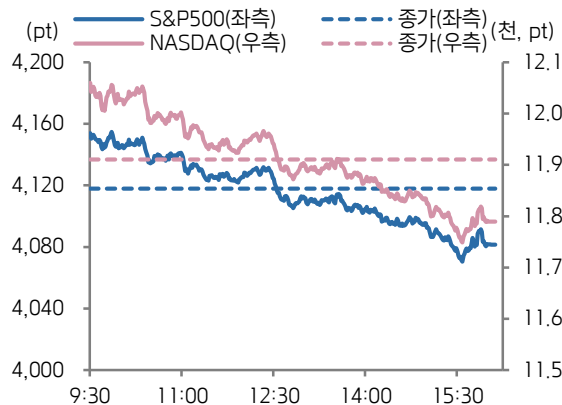
미국의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19.6 만건으로 전주(18.3 만건) 및 예상치(19.0 만건)를 모두 상회했으며,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도 168.8 만건으로 전주(165.0 만건) 및 예상치(165.8 만건)를 모두 상회함.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과거 3 개월간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으나, 중고차 등 일부 가격 하락으로 물가 품목 내 평균이 왜곡된 측면이 있기에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 또한 수요 둔화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까지는 반년에서 1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 JP 모건 다이먼 CEO 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며, 이것이 고착화될 시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언급.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2.5%에서 3.0%로 50bp 인상했으며, 인플레 대응 및 자국통화가치 안정이 인상 배경이라고 설명. 또한 물가가 지나치게 높은데다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긴축을 단행해 인플레 장기화시 발생할 수 있는 큰 폭의 금리인상 리스크를 억제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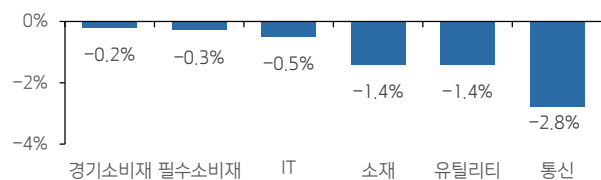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2.8%), 소재(-1.4%), 유틸리티(-1.4%), 금융(-1.2%) 등 전업종이 약세. 테슬라(+3.0%)는 지난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모멘텀이 잔존한 가운데, 3 월 1 일 예정된 인베스터 데이 행사 기대감도 조기에 부각된 영향으로 상승. 반면, 알파벳(-4.4%)은 지난 GPT 시연 오류 사태 여파 속 관련 업계 경쟁 심화 우려 부각 등으로 약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3.1%)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시간외에서 주가가 20%대 급락 중.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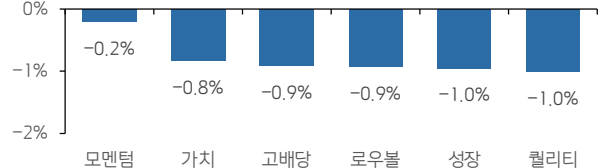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81.52	-0.09%	USD/KRW	1,260.31	+0.01%
코스피 200	324.90	-0.22%	달러 지수	103.23	-0.18%
코스닥	784.58	+0.59%	EUR/USD	1.07	+0.24%
코스닥 150	1,110.82	+1.43%	USD/CNH	6.80	+0%
S&P500	4,081.50	-0.88%	USD/JPY	131.54	+0.11%
NASDAQ	11,789.58	-1.02%	채권시장		
다우	33,699.88	-0.73%	국고채 3년	3.405	+7.6bp
VIX	20.71	+5.5%	국고채 10년	3.359	+5.4bp
러셀 2000	1,915.34	-1.4%	미국 국채 2년	4.482	+6.1bp
필라. 반도체	3,059.62	+0.13%	미국 국채 10년	3.662	+5.2bp
다우 운송	15,067.95	-2.12%	미국 국채 30년	3.731	+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50.14	+0.97%	WTI	77.65	-1.04%
MSCI 전세계 지수	651.09	-0.53%	브렌트유	84.2	-1.05%
MSCI DM 지수	2,801.96	-0.66%	금	1873	-0.94%
MSCI EM 지수	1,020.58	+0.5%	은	21.98	-1.96%
MSCI 한국 ETF	62.72	-0.3%	구리	406.75	+0.7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63.9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b>주요 체크 사항</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국 1월 물가지표 결과에 따른 중국 경기회복 기대감 지속 여부</li> <li>2. GPT 시연 문제로 인한 알파벳 주가 급락이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li> <li>3. 카카오페이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수급 영향</li> </ol>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 증시는 디즈니, 테슬라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 보였으나 이후 장마감까지 하락을 지속. FOMC 전까지 3.3%에 머물러 있던 10년물 국채금리는 3.6%대까지 상승한 점을 감안할때,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언급 이후 확산된 낙관론이 일부 되돌려지며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의 괴리가 좁혀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특히 투자심리 위축에 기여한 또 한가지 요인은 알파벳(-4.4%)이 급락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자체 AI 챗봇의 정확도 논란으로 인한 여파와 관련 업계 경쟁 심화 우려 부각으로 마이크로소프트(-1.17%) 역시 동반 하락하며 나스닥 및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약세를 주도. 국내도 마찬가지로 일부 AI 관련주에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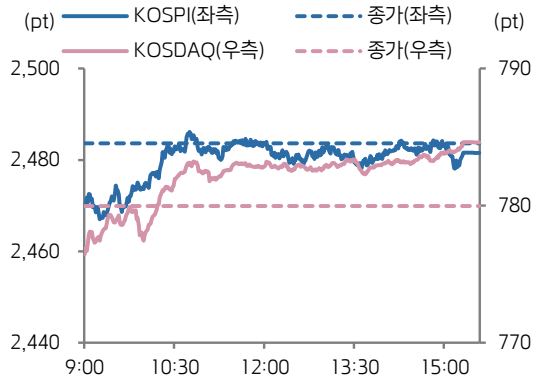
9일(목) 국내증시는 나스닥 급락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이를 연속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장중 낙폭을 축소, 2,500선에서 상단이 제한된 채 마감 (KOSPI -0.09%, KOSDAQ +0.59%). 어제 외국인은 코스피 1,490억, 코스닥 1,500억 순매수하며 코스닥 순매수 금액이 코스피를 넘어섬. 추가 상승 동력의 부재로 코스피 기준 2,500pt에서 상단이 제한되며 순환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키맞추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이차전지, 제약 바이오 업종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 금일에도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여부에 주목.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제신용평가 업체 피치가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이지만, 제로 코로나 해제로 인한 이동량 증가 및 개인들의 예금 증가로 보복성 소비가 크게 늘어나며 소비 주도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는 것.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는 3월 4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를 앞두고 경제전망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기대감 유입되며 전일 화장품 및 여행 레저 업종이 강세를 보였음.

중국 경기회복 기대감은 기업 데이터에서도 확인 가능. 전일뱅크오브아메리카는 애플의 1분기 YOY 매출 증가율 예상치를 하향조정하면서도, 스마트폰 시장 둔화에도 중국 매출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나 중국내 게임 매출 증가 및 규제 당국의 신작 승인 등을 언급. 또한 디즈니는 실적 발표 컨콜에서 테마파크 방문객 증가, 투숙률 상승 등 테마파크 부문의 이익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향후 요금 인상과 감원으로 인한 비용절감,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관련주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국내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배경 중 하나가 중국 경기회복 기대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일에 발표될 중국 1월 물가지수 결과에서 CPI의 상승(소비 증가)과 PPI의 하락(재고 조정)이 확인되며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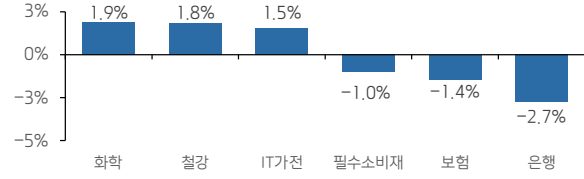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MSCI 분기 리밸런싱 리뷰에서 카카오페이를 신규 편입한다고 발표. 카카오페이의 유동물량이 10% 내외로 적은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지수 추종자금 및 펀드 추종 펀드자금 유입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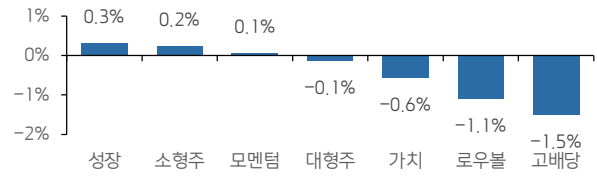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